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노동 내에서의 해방:

현대 기술이 가져온 기회 혹은 위기에 관한 성찰

소병철*

【요약】

이 글에서 논자는 오늘날의 지성계와 일반에 널리 퍼진 숙명론적 노동 종말 담론과 그 안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해 온 노동 없는 ‘여가 사회’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비전이 내세우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테제를 그것과 대비되는 ‘노동 내에서의 해방’ 테제에 준거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논자가 견지한 입각점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 덕에 아무리 노동을 덜 하게 되더라도 이 때문에 노동이 무의미해지지는 않는다는 단순한 인식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직업으로 이해되는 노동은 그 사람의 삶에 ‘생계’와 ‘인정’과 ‘의미’를 대주는 가치의 공급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노동 없는 ‘여가 사회’의 비전은 인간적인 일과 삶의 그러한 세 가지 의의소意義素를 점점 더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노동 없는 ‘여가 사회’의 비전이 우리에게 약속인지 위협인지, 다시 말해 우리가 그러한 사회에 살기를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자는 현대의 자동화 기술이 가시화한 노동일 단축의 가능성을, 노동을 소멸할 기회가 아니라 노동을 인간화할 기회로 활용하는 선택이 인간의 존엄성에 가장 잘 부응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한 선택의 제도적인 핵심은 노동일 단축을 통한 노동 공유 처방임을, 그리고 이 처방의 진수는 ‘노동에서 여가로의 무모한 탈주’가 아니라 ‘노동과 여가의 인간적인 재설계와 균형적인 안배’에 있음을 강조했다.

【주제어】 노동 종말, 자동화 기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노동 내에서의 해방, 노동의 인간화

* 순천대학교 철학과 부교수

<https://doi.org/10.34162/hefins.2021..26.004>

I. 노동 없는 세상은 오는가?

오늘날 인간의 노동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세기에 마르크스 Karl Marx가 고발한 노동의 ‘질’ 저하, 즉 노동의 소외도 여전히 문제지만, 여기에 노동의 ‘기회’가 점감하는 상황까지 더해져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는 극복할 가망도 기약도 없는 실존적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의 질 저하는 주로 구상과 실행의 분리에 기초한 수직적 노동 통제, 즉 포드주의의 조립 라인이 노동자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거나 유사한 단순 반복 작업의 여러 유형들에 의해 노동자의 인격의 자율성과 심신의 건강이 다소간 저해되는 현상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물론 수세기에 걸친 산업 구조의 변동에 따라 산업과 노동에 대한 과거의 칙칙한 블루칼라 이미지는 산뜻한 화이트칼라 이미지로, 컨베이어가 점령한 음울한 공장 이미지는 사무기와 전자 기기가 구비된 쾌적한 사무실 이미지로 서서히 바뀌어 왔지만, 오늘날 비중이 높아진 사무 노동도 대개는 아직 포드주의의 울타리에 갇혀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세넷 Richard Sennett이 제시한 통계를 보면 오늘날 미국의 직업 중 적어도 2/3 정도는 스미스 Adam Smith가 『국부론』에서 묘사한 핀 공장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와 유사한 단순 반복 작업이 주업무인 것으로 추정되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하는 작업 또한 단순한 정보 입력과 같은 판에 박힌 일 routine work이 대종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¹⁾

노동의 기회 축소는 대개 완전한 자동화로 치닫는 기술 발달의 경향성에 따라 기계가 인간을 차츰 일터에서 내쫓는 ‘기술적 실업’ 현상으로 나타난다. 맥도널드 Hector Macdonald는 이미 자동화의 물결에 휩싸인 제조업 부문을

1) 이에 관해서는 리처드 세넷, 조용 역 (2002), pp. 58-59, p. 216, p. 222 참조.

넘어 이제는 계산대 직원, 은행 직원, 전화 서비스 요원 같은 서비스직 노동자도 점차 자동 기계로 대체될 것이며, 트럭과 택시 운전사는 자율 주행차로, 요리사, 청소부, 미용사 같은 수작업 노동자는 빠른 손놀림과 공간 인식력을 구비한 고기능 로봇으로, 회계사, 재산 관리 변호사, 금융 전문 기자, 행정 사무관, 의학 연구 보조원 같은 지식 노동자는 해당 기능에 특화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서서히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한다.²⁾ 쉽게 말해 이것은 테크놀로지의 부단한 진화로 인해 생산과 서비스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인간 노동자’의 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예측에 따르면 현대인의 대부분은 단적으로 말해 잠재적인 실업자에 다름 아닌 셈이다. 바로 이런 진단이 오늘날 유행하는 ‘노동 종말’에 관한 숙명론적 상투어들의 미래학적 공통분모를 이룬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소위 ‘진보적인’ 서구 지식인들의 통상적인 대응 방식은 노동 사회의 사회적 시민권이었던 ‘일할 권리’에 맞서 자동화가 불러올 여가 사회의 사회적 시민권인 ‘게으름 권리’를 적극 옹호하는 것인 듯하다. 예컨대 앤서니는 기술의 개입이 점점 더 깊고 빨라지는 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노동은 더 이상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도 본성적인 욕구도 아니며 한갓 저기술 시대의 여흥에 불과한 무엇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자동화 국면의 기술이 모든 산업 부문의 노동(과 소외된 노동)을 급속히 일소해 가는 마당에 우리는 구태여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철학적·규범적 관점에서 찾아내고 지켜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 아래 그는 오늘날 “노동이 무의미해진 건 노동의 중요성이 떨어졌기 때문”³⁾이라고 단언한다. 이에 따라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노동의 규범적인 의의를 강변해 온 구래의 모든 선형적 a priori 노동 철학을 버리고 더 이상 노동 집약형일 수 없는 미래 사회의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할 처방을 강구하는

2) 이에 관해서는 헥터 맥도널드, 이지연 역 (2018), p. 356 참조.

3) Anthony (1977), p. 315.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로폴도 비슷한 논조로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에 대한 근대의 윤리적·인간학적 과대평가를 중단할 절호의 기회를 가져왔다고 진단한다. 그의 다소 거친 개념사적 분석에 따르면 노동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자기 목적 Selbstzweck도 아닌 생존 수단일 뿐이어서 가능한 한 피하고픈 필요악으로 사회 일반에 받아들여졌지만, 자본주의에 접어든 서구 사회가 자본 축적을 위해 임금 노동을 규율할 필요에서 교조적인 ‘근로’의 윤리를 만들어 유포했고, 마르크스는 사실상 호구책일 따름인 노동을 본래적인 인간성의 표현으로 격상함으로써 그러한 자본의 요구에 순진하게 부응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현대의 자동화 기술은 인간의 노동에 지워진 그 윤리적 과부하를 견어낼 수 있는 실효적 조건을 역사상 최초로 마련했다고 그는 주장한다.⁴⁾ 앤서니와 로폴의 이러한 주장들이 도달하는 자연스러운 귀결은 이제 자동화 기술이 우리를 ‘일할 권리’가 아니라 ‘게으를 권리’에 주목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노동 종말 담론과 그것이 배양하는 노동 혐오(혹은 여가 예찬) 사상은 우리로 하여금 기술의 역할과 정치 사회의 책임, 인생의 의미의 원천 등에 관한 중대한 문제들을 새삼 숙고하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노동 종말은 정말로 우리에게 피할 길 없는 숙명이긴 한 걸까? 그래서 우리는 좋건 싫건 종말에 다가가는 과정을 맥없이 바라보며 ‘노동 이후’의 미래를 그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한 것일까? 나아가 일에서 놓여난 ‘노동 이후’의 세상을 희망의 등대가 아니라 절망의 나락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노동 종말 담론은 어떤 종류의 인생 찬가를 새로이 만들어 들려줄 수 있을까? 라이트Erik Olin Wright가 지적한 것처럼 “기술 변화는 새로운 기회뿐만 아니라 주변화도 낳으며, ‘이를 상쇄하는 비자본주의적 과정이 부재할 때’ 주변화는 빈곤을 낳는다.”⁵⁾ 이는

4) 이에 관해서는 Ropohl (1992), pp. 32-41 참조.

5) 에릭 올린 라이트, 권화현 역 (2012), p. 82.

곧 자동화 기술이 조성하는 노동 종말 추세가 그대로 방치되면 오직 극소수의 엘리트 (지식) 노동자에게만 기회가 되고 나머지 대다수 노동자에게는 주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른바 ‘여가 사회’니 ‘게임을 권리’니 하는 최신 미래학의 예언들을 만인에게 자유를 가져다줄 기적의 묘약인 양 선전하고 수용해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논자는 이 글에서 노동 종말 담론이 내세우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테제를 그것과 대조되는 ‘노동 내에서의 해방’ 테제에 입각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논자가 견지할 입각점은 우리가 기술 덕에 아무리 노동을 덜 하게 되더라도 이 때문에 노동이 무의미해지지는 않는다는 단순한 인식이다. 자이거가 말하듯 한 사람의 직업으로 이해된 근대적 노동은 그 사람의 삶에 생계Versorgung와 인정Anerkennung과 의미Sinn를 대주는 가치의 공급원 역할을 해 왔다.⁶⁾ 그러나 논자는 이 말이 노동이 과거에 누렸던 영화榮華에 대한 역사적 회고로서만이 아니라 노동이 앞으로 인생에서 수행해야 마땅한 중대한 역할들의 암시로도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관점에서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도 소파에 파묻혀 있지 않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거리를 붙드는 이유를, 심지어 생계를 보장할 다른 수단이 생겨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른바 ‘게임을 권리’에 기반한 ‘여가 사회’의 예언들이 우리에게 약속인지 위협인지, 다시 말해 우리가 그러한 사회에 살기를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따져 봐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자는 본론에서 자이거가 언급한 근대적 노동의 세 가지 의의소意義素, 즉 ‘생계’와 ‘인정’과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 기술이 인간 노동을 위협하는 양상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한편, 기술이 조성 중인 노동 없는 세상이란 사실상 우리의 숙명이 아니라 선택임을, 따라서 우리는 노동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세상 또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음을 논증해 보고자 한다.

6) 이에 관해서는 Saiger (1998), p. 12 참조.

II. 생계로서의 노동은 사라지는가?

논자가 이 글에서 주목하는 ‘노동’이란 광범한 의미에서 ‘인간에게 유용한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공급하는 육체적·정신적 인간 활동 일반’을 말한다.⁷⁾ 여기에서 해당 활동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지불 노동인지 급여가 없는 부불 노동인지는 부차적인 문제에 속한다. 다시 말해 ‘유급직’ 특성은 어떤 활동을 노동으로 규정하게 해 주는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이것은 흔히 여성의 몫으로 치부되는 가사와 육아는 물론 지역과 공동체의 건강한 연대에 공헌하는 다양한 종류의 봉사 활동이 그것의 명백한 사회적 효용에도 불구하고 부불 노동인 탓에 어엿한 노동으로 취급되지 않아 온 현실이 실은 매우 부당한 것임을 말해 준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노동은 그것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매개로 노동자와 그(녀)의 가족에게 필요한 생계원이 되어 온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슈마허Ernst Schumacher는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기는 일”⁸⁾이라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러한 생계로서의 노동이 자동화 기술로 인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책임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선동가가 일을 해서 먹고사는 모든 이들에게 각자의 신통한 계획과 스펙으로 압박한 노동 종말에 대비하라고 외친다면 어떨까? 이것은 사실상 ‘당신네 대다수는 어차피 생계를 잃을 것’이라는 흥쾌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러한 묵시록적 태도는 노동 종말 테제에 대한 수많은 지식인의 불편한 양가감정

7)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노동은 그것이 노동자에 의해 목적 자체로서 향유되든 그렇지 못하든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는 ‘도구적 활동’이라는 공통의 정의적定義의 특성을 갖는다. 이에 관해서는 Volf (1991), pp. 10-14 참조.

8) 에른스트 슈마허, 김진욱 역 (1995), p. 239.

속에 맹아적인 형태로 잠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실업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세계 인권 선언」의 ‘일할 권리’를 입바르게 인용하면서도 막상 ‘4차 산업 혁명’이나 ‘노동 종말’에 관한 지구적 유행 담론과 마주치면 ‘노동 없는 세상’의 불가피성을 슬그머니 받아들이는 이중성을 보인다. 예를 들면 그들이 오늘날 “경쟁·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성장의 가치는, 취업, 고용 안정, 노동의 가치…를 급진적인 방식으로 대체”⁹⁾했다고 한탄하면서 동시에 “지식·정보 기술 중심 생산 체제…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피할 수 없는 요소”¹⁰⁾라고 체념한 듯 말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은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적어도 예전만큼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그들은 ‘일할 권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을 무력화하는 첨단 기술의 위력 앞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건지도 모른다. 둘 중 어느 경우든 거기에서는 생계로서의 노동이 사라지는 절박한 문제에 대한 어떤 생산적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무책임한 방식은 생계로서의 노동 일반을 ‘과로’ 혹은 ‘중노동’의 우울한 이미지와 결부시켜 윤리적으로 격하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활성화된, 지성계 일각의 ‘과로 사회’ 비판은 사람들을 일터로 견인하는 절실한 생계의 필요성을 일종의 강박적 취향인 일중독 workaholism과 단순히 동일시함으로써 일체의 노동을 자학自虐의 채찍이나 다름없는 정신병적 증후로 보이게 만든다.¹¹⁾ 나아가 그러한 논리는 끝없는 자기 착취와 번아웃burnout의 늪구덩이인 노동의 세계와 건강한 자유의 놀이터인 여가의 세계를 첨예하게 대립시켜 마침내 ‘노동은 악이고, 여가는 선’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화학 반응을 빚어낸다. 그리하여 이제 여가는 일하는

9) 최장집 (2013), pp. 155-156.

10) 최장집 (2013), p. 160.

11)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형을 보여 주는 인상적인 논저로는 한병철, 김태환 역 (2012); 스베나 플라스펠러, 장혜경 역 (2013) 참조.

동안에는 꿈도 못 꿀 자유의 별세상, 이를테면 누구든 갇혀있어도 보고, 글도 쓰고, 대화하고, 산책하고, 관찰하고, 상상하고, 놀고, 즐기고, 가르치고, 배우고, 만들고, 추구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치유하는 것이 가능한, 해방된 감성과 지성의 신세계로 이상화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과로 사회’ 비판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사물처럼 쥐어짜곤 하는 자본의 냉혹한 이윤 동기를 고발하는 나름의 계몽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로 사회’의 반대쪽 극단인 ‘여가 사회’의 공상적 전망을 통해 대단히 수상쩍은 ‘노동 혐오’의 파토스를 확산시킨다는 ‘낭만적 무책임’의 혐의도 피하기 어렵다. 도대체 노동으로 먹고사는 이들에게 노동 없는 ‘여가 사회’란 어떤 의미에서 좋은 곳일 수 있는가? 차라리 우리는 ‘노동’이 아니라 ‘과로’가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온갖 문제의 진원이라고 보다 분명히 말해야 하지 않을까? 코슬로브스키는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의 과잉인 과로와 노동의 결핍인 실업이 다 같이 인간 삶의 활력을 억누르는 심각한 병증 유발 요인이라고 말한다.

과로는 자아의 병증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과로하는] 자아는 활동의 객체, 즉 객관성에 함몰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불완전 고용도 자아의 병증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일이 없는] 자아는 더 이상 객관적인 의미 맥락과 연결되지 못하며, 사회적인 가치 창조와 공동의 노동을 매개로 구축되는 상호 주관성 또는 ‘사교성’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꺾쇠괄호는 논자 삽입).¹²⁾

이와 같이 그는 과로가 인간에게서 주체를 박탈하듯 실업 또한 객체를 박탈한다는 이유로, 인간 소외의 책임을 노동 자체에 전가하는 논리적 오조준을 신중히 경계한다. 『과로 사회』의 저자인 김영선도 “자유 세계는 장시간 노동이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된다”¹³⁾고 말하며 ‘노동’이 아니라 ‘과로’, 즉 ‘장시간 노동’이 문제의 진원임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장시간 노동을 거부하

12) Koslowski (1994), p. 121.

13) 김영선 (2013), p. 182.

는 투쟁은 노동을 등지려는 도피행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의 권리’와 ‘삶의 권리’를 다 함께 지켜 내려는 투쟁임을 강조한다.¹⁴⁾ 말하자면 그것은 노동자의 심신을 닦달하는 긴 노동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동과 건강한 여가의 균형적 선순환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의 민주화’ 기획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우리 앞에 쏟아지는 그 숏한 노동 종말의 예언들이 사회적인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규범적 선결 조건 한 가지를 암시해 준다. 그것은 그러한 예언들이 대규모의 ‘기술적 실업’을 예방할 일자리 분배제, 즉 과감한 노동일 단축과 노동 공유 체제의 정치한 구상으로 보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러한 예언들은 ‘너희 모두 머지않아 생계를 잃고 절망의 늪에 빠지리라’는 묵시록적 메시지에 불과한 무엇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은 마르크스가 꿈꿨던 ‘자유의 왕국’의 중대한 선결 조건인 ‘노동일 단축’이 정말로 실행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이미 많은 나라들이 도달했다고 진단한다.¹⁵⁾ 그리고 이것은 러셀Bertrand Russell이 실로 파격적인 ‘4시간 노동제’의 전선에서 견지한 진보적 자유정신의 물질적·경험적 지지대이기도 하다. 러셀은 그의 유명한 평론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만일 사회를 현명하게 조직해서 아주 적은 양만 생산하고 보통 근로자가 하루 4시간씩만 일한다면 모두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고 실업이란 것도 없을 것”¹⁶⁾이라고 단언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겐 과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겐 굶주림을 강요하는 지금의 ‘과로-실업 양극화’ 체제를 지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생계로서의 노동이 조만간 자취를 감추리라는 예언에 집중하기보다는, 발달 일로에 있는 노동 절약 기술이 노동과 여가의 균형적인 안배에 선회되지 않고 도리어 취업층과 실업층, 정규직과 임시직의 양극화에 악용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14) 이에 관해서는 김영선 (2013), pp. 182-183 참조.

15) 이에 관해서는 Negt (1987) 참조.

16) 버트런드 러셀, 송은경 역 (2005), p. 24.

다른 한편, 라이트를 비롯한 개방적 ‘혼종 경제’ 옹호자들은 자동화 단계의 기술을 전 인류의 공공公器로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각 개인의 생계를 임노동과 무관한 만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책임 있는 (노동) 종말론이 충족해야 할 두 번째 규범적 선결 조건을 암시해 주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노동과 생계의 분리’에 대한 전망, 즉 노동과 생존의 인습적 연결 고리를 끊는 균등한 기본 소득 구상이 종말의 예언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이트는 그러한 기본 소득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란 점에서 ‘무조건적’일 뿐 아니라 부자와 빈자가 똑같이 받는다는 점에서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시민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⁷⁾

또한 그는 이러한 소득이 노동 시장에서 만인에게 ‘입퇴장의 자유’를 부여해 사람들이 단조롭고 무의미한 노동에의 예속을 거부하고 의미 있고 활력적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일거리를 시장 안팎에서 찾도록 유도할 것으로 낙관한다. 나아가 그것은 보람된 자기실현의 추구와 더 많은 부의 추구를 경쟁하게 함으로써 고용주들에게 최소한의 가용 인력 확보를 위해 노동을 가능한 한 인간화할 유인을 제공할 거라고도 말한다. 다시 말해 노동 시장 안팎의 만인에게 균등한 기본 소득이 제공되면 “고용자들은 기술적·조직적 혁신을 추구해 불쾌한 노동을 제거하려는 구조적 인센티브를 가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기술 변화는 노동절약적 경향뿐만 아니라 노동을 인간화하는 경향도 가지게”¹⁸⁾ 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맞건 안 맞건 무조건적·보편적 기본 소득은 특히 노동이 희소해질 미래에 인간의 생존권을 유보 없이 보장하기 위한 사민주의 정책의 중핵일 수밖에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희소해진 노동을 균등히 나누는 노동 공유 처방과 다르게 기본

17) 이에 관해서는 에릭 올린 라이트, 권화현 역 (2012), p. 304 참조.

18) 에릭 올린 라이트, 권화현 역 (2012), p. 306.

소득은 ‘노동 종말’ 문제의 직접적인 해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의 종말이란 전술한 것처럼 단순한 ‘소득’의 종말이 아니라 ‘인정’의 종말이자 ‘의미’의 종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슐로트펠트는 사회적인 노동과 사회적인 인정 간의 규범적인 연관성을 허무는 기본 소득 처방의 수용을 주저하며,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성원에게 지불 노동을 매개로 사회적인 인정을 획득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회의 공적인 책무임을 강조한다.¹⁹⁾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생계’로서의 노동이 사라지는 문제에 못지않게 ‘인정’과 ‘의미’의 원천인 노동이 사라지는 문제 또한 심각한 것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 우리는 생계가 해결돼도 존재를 인정받고 의미 속에 살기 위해 여전히 노동을 갈망할 것이다. 이제 논자는 바로 그 ‘인정’과 ‘의미’라는, 노동의 남은 두 의의소를 지금 운위되는 ‘노동 종말’과의 관련 하에서 차례로 검토해 볼 것이다.

III. 인정의 근거로서의 노동은 사라지는가?

인간은 누구나 일할 나이가 되면 자신의 일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세계를 만드는 창조와 재생산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느낀다. 작가인 동시에 비행사였던 생텍쥐페리Antoine de Saint-Exupéry는 그의 자전적 소설인 『인간의 대지』에서 사고로 죽은 한 동료 조종사의 남다른 용기와 영웅성을 기리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책임을 진다는 것”이요 “이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데에 일조하는 것”²⁰⁾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양 치는 목동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나 성운을 관측하는 천문학자 못지않게 응분의 책임으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며, 이러한 기여는 무엇 하나 하찮은 게

19) 이에 관해서는 Schlothfeldt (2001), pp. 709-721 참조.

20)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배영란 역 (2009), p. 74.

없다고 역설한다. 단적으로 말해 “그는 양들의 보초가 되는 것”이요, “각 보초 하나 하나는 제국 전체에 대한 책임자”²¹⁾라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한 사람을 사회적인 협력과 책임의 연결망에 들어서게 해 주는 매개가 일이라면, 우리는 일을 통해 사회라는 공공의 장에서 각자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는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장집은 “노동시장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 겪는 자존의 상실…은 물질적 혜택의 축소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²²⁾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요컨대 자존의 근거가 될 사회적 ‘인정’의 기회를 나눠 받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슈마허가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인간의 머리와 수족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생산성 극대화 기술보다 그것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인간 중심 기술이 더 많이 개발되고 상용되어야 한다고 외쳤던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의 시간과 노동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실감實感を 갖게 되면, 비로소 이 두 가지의 가치를 더욱 높이려는 의욕이 생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편이,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만들기보다 중요한 것이다. 설령 예외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산에 종사하기 때문에 산출고가 줄어드는 일이 있더라도, 이는 여전히 옳은 것이다.²³⁾

이러한 생각은 현대 문명의 근간인 산업과 관련한, 기존의 지배적인 관행들의 중대한 방향 전환을 전제한다. 이를테면 자본 집약적 경제에서 노동 집약적 경제로의 전환, 물량 중심 경제에서 인간 중심 경제로의 전환, 대량 생산 체제에서 대중 생산 체제로의 전환 등이 그것이다.²⁴⁾ 물론 이러한 전환은 우리가 ‘끝없는 성장’에 관한 자멸적 미신을 버리고 ‘성장의 한계’에 걸맞은 소규모의 인력 의존적·생태 친화적·분권적 경제들의 연결망을 설계

21)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배영란 역 (2009), p. 296.

22) 최장집 (2013), p. 135.

23) 에른스트 슈마허, 김진욱 역 (1995), p. 192.

24) 이에 관해서는 에른스트 슈마허, 김진욱 역 (1995), p. 78 참조.

해 운용할 때에만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틀은 인간의 노동을 쓸모없게 만드는 복잡하고 거대한 기술에 사활을 걸기보다는, 모든 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 공동체에 응분의 기여를 하고 또 응분의 인정을 누리게 하는, 적정 기술 기반의 대중 생산 사회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²⁵⁾

슈마허는 이러한 대중 생산 체제 말고는 점증하는 ‘기술적 실업’ 문제를 해결할, 지속 가능한 단안이 없다고 역설한다. 그에게 있어 그러한 체제를 만드는 일은 ‘기술을 인간의 키에 맞추는’ 일, 다시 말해 “기술의 방향을 전환시켜,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봉사하도록”²⁶⁾ 조절하는 일이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 기술의 가공할 위력이 전 세계의 지성계에 드리운 짙은 숙명론의 그림자를 과감히 떨쳐 내고 기술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새삼 상기하게 만든다. 현대 기술의 ‘유사’ 자율성에 주목했던 엘뤼Jacques Ellul은 “우리의 결정력과는 무관한 자기 자신의 실체와 존재양식을 지닌 기술의 ‘실재성reality’”²⁷⁾을 결코 가버이 여기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조차도 ‘인류의 미래를 기술에 내맡기면 안 된다’는 호소를 내놓지는 않았다. 그는 우리가 기술의 유사 자율성에 굴복해 기술을 통제할 의지를 잃으면 그 즉시 기술의 맹목적 결정력에 운을 맡긴 필연의 노예가 되리라고 경고한다.²⁸⁾ 그 이유는 기술이 선악善惡과 정사正邪를 분별하지 않는다는,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사실에 있다. 단적으로 말해 “기술은 도덕적 용도와 비도덕적 용도 간의 구별을 용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완전히 독립적인 새로운 기술 도덕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²⁹⁾는 것이다.

이렇듯 기술은 생각 없이 작동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낫 놓고 있어도 기술이 알아서 인간을 위한 길을 찾을 리는 만무하다. 이것은 우리가 기술의

25) 이에 관해서는 에른스트 슈마허, 김진욱 역 (1995), pp. 170-171 참조.

26) 에른스트 슈마허, 김진욱 역 (1995), p. 177.

27) 자크 엘뤼, 박광덕 역 (1996), p. 108.

28) 이에 관해서는 자크 엘뤼, 박광덕 역 (1996), p. 13 참조.

29) 자크 엘뤼, 박광덕 역 (1996), p. 112.

진보를 가파른 맹목적 역동성에 내맡기지 않기 위해 무수한 사람을 열패자로 만드는 자본의 이윤 동기를 보편적인 인간 존엄 원칙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우리가 자동화 기술의 유익을 전적으로 긍정하게 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그러한 원칙을 구현했다고 생각되는 경우뿐이다. 예컨대 인간을 ‘노동 기계’로 만드는 물지성적 단순 반복 작업이 오늘날 대부분 자동화된 기계에 맡겨진 것은 기술의 그러한 긍정적 잠재력이 합당하게 발현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것처럼 저열하고 위험한 노동만 맡게 할지, 아니면 심신의 건강과 활력, 사회적인 인정과 자존의 원천이 되는 여타의 육체적·정신적 활동까지 전부 다 맡게 할지를 기술이 결정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건강하고 자발적인 유용 노동이 주는 인간 심신의 효능감과 의미감을 기계가 앗아가지 못하도록 기술의 정당한 기능과 용법, 규모와 적용 범위를 민주적인 집단 지성의 힘으로 협의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뎀퍼드Lewis Mumford는 “기계의 합리적 이용이 약속한 주요 이득은 분명 노동의 제거는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오히려 “기계가 약속한 것은 신체를 불구로 만들고, 마음을 조이게 하고 정신을 병들게 하는 굴종의 노동 혹은 노예 노동의 제거”³⁰⁾라는 것이다. 이 말은 기술이 단연코 인간의 훼손과 대적하는 인간의 무기여야지 인간의 퇴출에 앞장서는 자본의 침병이어선 안 된다는 뜻을 내포한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유념해야 할 점은 기술이 어쨌든 저절로 인간을 위해 주진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기술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술이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줄지 위기를 가져다줄지는 인간의 목적의식적 설계에 달린 일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선의로 우리를 기술의 희생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뎀퍼드가 말하듯 “이 문제는 공동체의 실제적 필요에 알맞게 기계의 본성과 리듬을 변형하는 것”³¹⁾이며, “기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능력은

30) 루이스 뎀퍼드, 문종만 역 (2013), p. 555.

기계를 인간의 목적에 맞게 동화시키는 우리의 힘에 달려 있다.”³²⁾ 이런 힘을 갖기 위해 우리는 우선 인류가 축적해 온 다방면의 경험적 지식과 인간에 대한 균형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계가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또는 없는) 영역과 정도를 신중히 판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기계가 인간을 돕는 것이 인간을 ‘기술적 실업’으로 내모는 게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다. 멈퍼드는 기계가 인간에게 줄 수 있고 줘야 하는 도움의 성격을 주로 ‘인간의 역량 증진’과 관련지어 규정한다. 다시 말해 기계가 인간에게 구원의 반력일 수 있는 것은 “기계가 더 지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성숙한 인간의 창조적 노력을 보조할 때, 인간의 분신인 이 강력한 자동기계가 인간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때”³³⁾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인간의 지성과 선의가 닿지 않은 맹목의 기술은 맹목의 자본 및 권력과 결합해 무수히 많은 일터와 삶터에서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순육하고, 퇴출하고, 살상하는 억압의 철폐가 되곤 한다. 우리는 그러한 기술의 폭주를 기술이 스스로 하는 일로 오인해선 안 된다. ‘기술의 도도한 물살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결정론적·무도덕적^{amoral} 체념을 노련한 지식인의 기초화장처럼 여겨서도 안 된다. 기술은 인간의 의지로는 범접 못할, 그 어떤 신비의 권능을 지닌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의 필요가 만들어 낸 실용적 발명품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이것을 부인하는 기술 물신주의^{technological fetishism}는 기술이 인간을 억압하고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서 기술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성을 바꾸는 게 상책이라고 강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안인 ‘노동 종말’도 엄밀히 말하면 ‘기술적 필연’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선 소수의 이익에 복무하는, 대단히 편파적인 ‘인위적 선택지’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어떤 이익을 위해 노동 종말을 앞당기는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억제해야 하는가? 헝스바흐는 이른바

31) 루이스 멈퍼드, 문종만 역 (2013), p. 502.

32) 루이스 멈퍼드, 문종만 역 (2013), pp. 493-494.

33) 루이스 멈퍼드, 문종만 역 (2013), p. 450.

‘민주적 시장 경제’에 관한 짧고 함축적인 테제로 이 물음에 답하는데, 이에 따르면 “민주적 시장 경제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조직된 노동과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와 경제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으로 특징지어진다.”³⁴⁾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오늘날 수많은 지식인이 내미는 ‘노동 없는 미래’의 그림에 ‘민주적 시장 경제’가 들어 있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IV. 의미의 원천으로서의 노동은 사라지는가?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 긴요한 ‘의미’의 공급원으로서의 노동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일에서 단순한 밥벌이 이상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싶어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내 일은 가치로운 무언가의 나다운 성취’라는 믿음으로 어떤 ‘중요하고’ ‘바람직한’ 직무에 저마다의 ‘개성화된’ 방식으로 보람되게 헌신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가치로운 것으로 지각된 초개인적 목표의 성취와 자유롭고 개성적인 자기실현을 일상의 노동에 의해 결합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저마다의 실존적 의미 부여 방식인 셈이다. 그러한 의미 부여에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의 노동이 그들의 삶을 값지게 만드는 걸 체감할 것이다. 반대로 자기 일이 사회에 무용하거나 해롭다고 느끼는 사람들³⁵⁾과 상급자나 기계가 시키는 대로만 일하도록 강요받는 사람들은 실추된 자존감과 만성화된 무력감 때문에 인생이 무망하게 의미를 잃어 감을 매일매일 통감할 것이다.

34) Hengsbach (1994), p. 21.

35) 이들은 자신이 먹고살려고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매일같이 스스로를 상대로 힘겨운 인정 투쟁을 벌여야 하는 부류이다. 칙센트미하이 Mihaly Csikszentmihalyi는 그러한 부류의 실례로 일부 공무원과 세일즈맨, 군수 산업 연구원과 담배 산업 종사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이희재 역 (1999), p. 135 참조.

전자의 부류에게 일터는 ‘의미의 광맥’일 것이고, 후자의 부류에게 그것은 ‘무의미의 형장’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전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는 후자의 부류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고용주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뽑아내기 위해 특정한 노동 통제 기술을 매개로 노동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숙련 수준을 낮추고, 주요한 과업을 관례화하며, 이에 대한 감독 요건 또한 단순화하는, 이른바 ‘과학적 관리’의 기법을 대부분 상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킨David Meakin은 현대의 산업 노동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저항의 핵심에 다름 아닌 “자동화된 노동, 이니셔티브도, 창의도, 책임도, 주체성도 없는 노동에 대한 거부”³⁶⁾가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한다. 18-19세기 산업 혁명이 만들어 낸 ‘기계의 빠른 스타카토 리듬’의 예리한 관찰자였던 머퍼드도 그러한 예측적 노동이 웅변해 주는 ‘인간의 사물화’의 실상을 이렇게 고발한다.

“모든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라는 칸트의 정언명령은 기계 산업에서 노동자를 오로지 더 값싼 기계적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 바로 그 순간에 터져 나왔다.³⁷⁾ 자연을 착취하는 인간의 무자비함은 부메랑이 돼 인간에게 돌아왔다. 이제 노동력은 착취될 수 있고, 채굴될 수 있고, 고갈될 수 있고, 종국에는 폐기될 수 있는 자원으로 전락했다.³⁸⁾

이처럼 산업 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문명에서 평범한 노동자 대다수는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아래 어떠한 변화도 선택의 여지도 없는 타율적·기계적

36) 데이비드 미킨, 이동하 역 (1986), p. 18.

37) 이 말은 칸트Immanuel Kant가 이른바 ‘목적 자체의 정식’으로 알려진 정언 명령의 한 표현형을 최초로 제시한 도덕 철학 저작이 유럽에서 산업 혁명이 한창이던 1785년에 출간된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이에 관해서는 임마누엘 칸트, 이원봉 역 (2002), p. 84 참조.

38) 루이스 머퍼드, 문종만 역 (2013), pp. 253-254.

단순 반복 노동에 종사해 온 셈인데, 이러한 상황은 대개는 자본의 증식에 동원된 ‘과학적 관리’의 기법과 그것의 중핵을 이루는 원칙인 ‘구상과 실행의 분리’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³⁹⁾ 그러나 자본이 세워 놓은 구상을 노동자가 그대로 실행케 하는 이 수직적 노동 통제 기법은 인간성의 통합적 부분들인 머리와 육체를, 지혜와 근력을, 이성인 *homo sapiens*과 공작인 *homo faber*을 완고히 분리하고 전자에 의한 후자의 지배를 고착화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여 왔다. 이로써 그것은 온전한 인격의 통합성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수동성과 무기력을 체질화해 시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자양하는 민주주의를 치명적인 영양실조에 빠뜨린다는 비판 또한 면하기 어려웠다. 미킨이 항변한 것처럼 “사람이 나날의 노동 속에서 기계적으로 행동하게끔 강요당할 때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조만간 그와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창조성 및 책임의식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위험이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하여 이보다 더 음험한 위험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⁴⁰⁾ 이러한 위험을 공동체 파멸의 징후로 보았던 그는 노동자 대중의 “수동성, 비창조성, 체념, 책임감의 결여에 대한 초대는 정확히 파시즘의 전제 조건을 이룬다”⁴¹⁾고까지 경고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는 일터에서 비인간적 실존을 감내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매개로 ‘즐거운 여가’라는 간헐적·단속적 선물을 제공하는 나름의 용의주도함을 갖추고 있다. 그 덕에 평범한 노동자는 살아 있는 매 순간은 아니어도 (주로 퇴근 후인) 하루 중 얼마간은 사람답게 산다는 느낌으로 스스로를 위안한다. 벤야민 *Walter Benjamin*이 신랄히 풍자하듯 “대다수의 도시민들이 평일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내내 ... 자신들의 인간성을 포기해야” 하지만, “저녁에는 이와 똑같은 무리의 대중이 영화관을 메워 영화배우가 그들 대신 복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려고 한다.”⁴²⁾

39) 이러한 해석의 효시가 된 고전적 정치 경제학 텍스트로는 해리 브레이버맨, 이한주·강남훈 역 (1998) 참조.

40) 데이비드 미킨, 이동하 역 (1986), p. 29.

41) 데이비드 미킨, 이동하 역 (1986), p. 296.

영화관뿐 아니라 쇼핑몰도 유흥가도 스포츠도 TV도 다 같이 이튿날 일터의 모욕을 감내할 기력을 충전하는 주기적·일시적 망명처가 되어 준다. 이로써 노동의 만성병은 여가의 대중약으로 매일매일 무마되고, 사람들은 전체로는 하나인 산업 사회를 한 번은 길들여진 노동자로서, 또 한 번은 길들여진 소비자로서 두 어깨로 떠받친다. 굴드Stephen Jay Gould는 지금까지 “아인슈타인에 필적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면화 농장과 노동 착취 공장에서 살다가 죽어 갔다”⁴³⁾는 점을 매우 애석히 여겼지만,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한 재능이 묻혀도 ‘많이 벌어들여 많이 쓰면 아인슈타인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소비주의의 교의로 ‘의미’에 목마른 노동자를 고무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는 의미 없는 노동의 고통이 목적 없는 여가의 쾌락으로 쉽사리 상쇄되지 않는 것을 평생 동안 경험한다. 다시 말해 기계적인 노동이 그들의 인간성에 가한 모욕과 손상은 그것을 감내한 대가로 지급된 ‘빵’이나 ‘서커스’로 간단히 무마되지 않는다. 빵이 작고 서커스가 볼품없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가 퇴근 후의 포식과 향락을 허하는 동물적 처방으로 호도된 데서 오는 모멸감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 노동을 희생시켜 삶을 구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음을, 다시 말해 인간의 삶의 질은 그가 하는 일의 질과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음을 함의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노동에 응분의 자율성과 책임성과 창조성을 부여하는 ‘노동의 인간화’가 없이는 그의 삶을 인간답게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끝내는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보토모어는 의미 있는 노동과 (능동적인 여가를 포함하는) 인간적인 생애의 그러한 상관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한다.

불쾌한 환경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지루하고 무의미한 직무에 종사하

42)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2007), p. 67.

43) 스티븐 제이 굴드, 김동광 역 (1998), p. 185. 이 구절은 번역이 다소 어색해 논자가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며 종속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노동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여가 시간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개인으로서 충분히 자기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더욱이 그럴 수 있더라도 그만큼 더 그는 자신의 노동에서 좌절하고 상처받을 것이다. 능동적인 여가의 발전이 개인의 전 생애의 조화로운 일부분을 형성해야 한다면, 여기에는 개인에게 더 많은 책임성과 자신의 환경을 형성하는 데서의 더 큰 역할, 그리고 업무상의 더 큰 다양성과 흥미를 부여하는 노동 조직상의 변화들이 수반되어야 한다.⁴⁴⁾

이러한 생각은 또한 매우 중요한 기업 윤리적 함의를 갖는다. 예를 들어 니타머는 “성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의미를 제공해야 한다”⁴⁵⁾는 말로 노동을 의미 있게 만드는 조건들을 조성하려 애써야 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삼열은 그러한 노력의 초점이 노동자 “스스로의 자발성initiative을 확대하고, 결정의 범위를 확장시키며, 그리고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⁴⁶⁾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홉슨은 더 나아가 경제적인 효용economic utility과 인간적인 효용human utility의 구별 및 ‘산업의 인간화’ 테제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그에 따르면 경제적인 효용과 인간적인 효용은 성격이 아주 판이해서 경제적인 효용의 증대에는 많은 경우 인간적인 비용이 수반되며, 인간적인 효용의 증대에도 많은 경우 경제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필요한 적정선을 넘어서 축적되는 경제적 과잉 소득은 그것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력의 육체적·정신적 혹사와 그것의 소비에 수반되는 문화적·환경적 위해를 비롯한 수많은 인간적 비용들을 발생시킨다. 간단히 말해 맹목적인 경제적 효용 추구는 자본주의 경제가 노정하는 다양한 인간적 결함들의 직접적·실효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⁴⁷⁾ 똑같은 이유로 매퍼드도 경제적인 “효율은 반드시

44) Bottomore (1966), p. 400.

45) Niethammer (1994), p. 111.

46) 김태길 외 (1992), p. 124.

47) 이에 관해서는 Hobson (1992)의 “Preface”, vii-viii 참조.

전 인격의 활용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기계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전 인격의 균형이 위협받을 경우 즉시 중지돼야 한다”⁴⁸⁾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원래 자리인 노동 종말 담론의 문제 지평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들어 온 종말의 예언대로 가까운 미래에 자동화 기술이 완성되면 지금까지 살펴본 ‘의미’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어 버릴까? 그러면 전통적인 ‘의미’의 공급원이 사라진 그 자리의 공허를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노동 종말 담론의 유력한 종착지인,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에 기초한 ‘여가 사회’의 비전을 그것과 좀 다른 해방의 비전, 즉 ‘노동 내에서의 해방’에 기초한 ‘균형 사회’의 비전과 견주어 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 두 개의 비전은 모두 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미래에 그 어떤 규범적인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맨 먼저 던져야 할 최상위의 연구 물음은 ‘노동은 사라질 것인가?’가 아니라 ‘노동은 사라져도 되는가?’일 것이다. 앞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 기술을 장악한 자본과 권력은 탐욕이 이끄는 대로 노동을 없앤 후 내친김에 사람들이 멸절한 두 다리로 걷지 않고 어떤 전자동 보행기에 몸을 옥여넣는 초과잉 기술 사회를 설계할지 모른다. 그래도 되냐고 반문하면 우리는 이미 뒤의 물음을 던진 셈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 전통적인 ‘의미’의 공급원인 노동을 기계에 빼앗겨도 되는가, 그리고 사라진 ‘의미’의 자리를 차지한 무위의 공허를 또 어떤 기술적 때움질로 미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프리드만은 이러한 문제들이 암시하는 자동화 기술의 인간 공학적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더욱이 마침내 자동화가 육체노동을 없애고 노동 시간을 크게 줄여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정신적 균형과 자기실현 가능성의 기초가 되어 온 본질적 요소(이것은 전통적으로 노동에 부여되어 온 역할이다)를

48) 루이스 머퍼드, 문종만 역 (2013), p. 354.

앗아가 버리면, 그렇게 해방된 시간 속에서, 다시 말해 적극적인 여가 활용 속에서 인간 개발을 위한 새로운 중심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자동 장치가 ... 문제들을 없애 주진 않는다. (……) 그것의 효과는 정의로운 제도가 부재하고 자유와 지혜가 박탈된 세계에서 일어나면 인간 파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⁴⁹⁾

이러한 경고는 기술이 자본과 권력의 금맥이 아니라 평범한 만인의 공기가 되게 할 민주적 숙의democratic deliberation를 시민의 힘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날 우리의 동의 없이 전개되기 일쑤인 우리 삶의 전방위적 기계화, 점점 더 심해지는 기계광機械狂과 기계치機械癡의 양극화, 후자가 겪게 되는 기술적 소외 등은 엄밀히 말하면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면한 정당성 위기의 직접적인 징후라 할 만한 현상들이다. 그런데도 기술에 결박된 제도들의 상상력은 기술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이른바 ‘기술 리터러시 technological literacy’를 갖추라고 촉구하는 수준에만 머문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은 수용하면 은혜를 내리고 거부하면 벌을 주는 신처럼 추앙된다. 그러나 기술에 결박된 상상력을 해방하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여가마저 점령한, 핏기 없고 불확실한 미래의 그림이 아니라 만인이 적절한 기술의 도움으로 적절한 양과 질의 노동을 수행하고 충분한 길이의 여가를 누리는, 또 다른 미래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이 그림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붓질은 당연히 자본과 권력이 혐오할 공익적 처방, 즉 노동일 단축을 통한 노동 공유의 제도적인 안착일 것이다. 그러나 이 처방의 진수는 더 이상 ‘노동에서 여가로의 무모한 탈주’가 아니라 ‘노동과 여가의 인간적인 재설계와 균형적인 안배’에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말하자면 ‘노동의 안락’에서 고양된 의미와 삶의 질을 요구하는 노선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노선의 최우선 과제는 더 이상 자본과 권력이 아니라 인간의

49) Friedmann (1978)의 “Foreword” 맨 끝 문단. 이 책은 “Foreword”와 “Introduction”에 쪽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다.

필요에 부응하는 노동과 여가의 개념을 광범한 시민들의 공익적 속의로 정의하고 구현하는 일이다. 그러한 비판적 속의에 기반해 우리는 기술에 일자리를 빼앗기는 무력한 처지를 벗어나 기술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론의 주체로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지켜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인류를 물리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우둔의 늪에서 구해 내는 ‘삶의 기술’은 고용하되, 인류에게 해가 되는 ‘죽음의 기술’, 즉 사람을 죽이는 전쟁 기술, 생태계를 파괴하는 고에너지 투입 기술, 사람을 쓸모없게 만드는 과ощ자동화 기술 등은 해고하는, 안전한 공공의 조치들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이렇게 역전되면 우리가 익히 아는 노동과 여가의 풍경은 일변할 것이다. 노동은 이제는 제도화된 공익적 속의와 인간화된 기술 덕에 일터에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나눠 받을 것이며, 생산과 소비는 인간의 건강과 존엄의 보호에,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에 긴요한 생태적 적정선을 지켜 가게 될 것이다. 단축된 노동일은 노동을 노동자의 ‘자존’과 그의 생의 ‘의미’가 피어나는, 생기 있고 발랄한 자기실현 활동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여가도 더 이상 노동의 모욕을 잊으려는 가없는 몸부림의 시간일 필요가 없게 된다. 이제부터 여가는 보람되게 일을 마친 사람들을 자유로운 비영리적·자족적 활동들의 수많은 영역으로 들여보낼 것이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건강하고 활기 있는 운신과 사귀의 다양한 기회들을, 그리고 활동에의 섬세한 몰입과 감응이 주는 도덕적·심미적 만족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여가는 변화된 노동과 더불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열정과 창조적인 자기애를 고무해 그들을 무수한 전인적 성장의 길들로 인도해 갈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 것이다’는 당연히 사태가 그렇게 전개될 거라는 사실적 예언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를 시민들의 참여적인 연대로 이뤄 내야 한다는 규범적 제언이다. 그리고 이 제언은 현대 기술의 다양하고 풍부한 잠재력이 오로지 이윤의 확대에만 골몰하는 거대 자본과 이들을 비호하는 국가 권력에 휘어잡혀 악용되지 못하게 할 시민적 견제가 지금 당장 절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한 견제가 없을 경우 기술은 가까운 장래에 자본과 권력을 살찌운 대가로 미증유의 대량 실업과 만연한 빈곤, 인간 삶의 무기력과 의미 상실, 기술의 과성장 동력화와 지구 생태계 파멸 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살게 될 미래를 그러한 무노동·과여가의 테크노폴리 technopoly로 만들지, 아니면 노동과 여가가 건강히 번갈아 향유되는 균형 사회로 만들지를 우리의 집단적인 양심으로 무겁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택지는 많지 않다.

V. 자본주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가?

지금까지 논자는 오늘날의 지성계와 일반에 널리 퍼진 숙명론적 노동 종말 담론과 그 안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해 온 노동 없는 ‘여가 사회’의 비전이 인간적인 일과 삶의 세 가지 의의소인 ‘생계’와 ‘인정’과 ‘의미’를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논자는 현대의 자동화 기술이 가시화한 노동일 단축의 가능성을, 노동을 소멸할 기회가 아니라 노동을 인간화할 기회로 활용하는 선택이 인간의 존엄성에 가장 잘 부응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한 선택의 제도적인 핵심은 노동일 단축을 통한 노동 공유 처방임을, 그리고 이 처방의 진수는 ‘노동에서 여가로의 무모한 탈주’가 아니라 ‘노동과 여가의 인간적인 재설계와 균형적인 안배’에 있음을 강조했다.

논자는 이제 이러한 생각에 내포된 중요한 논쟁점 하나를 언급하는 것으로 먼길을 걸어온 이 글을 갈무리하고자 한다. 그것은 논자가 옹호한 미래의 사회상이 시민들의 비판적인 집단 지성을 매개로 자본주의 시장의 외생적 변수인, 일련의 국가적·공공적 조치들을 불러들이는 뚜렷한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만인이 적정한 양과 질의 노동을 수행하고 충분한 길이의 여가를 누리는 균형 사회를 공공의 제도로 구현하는 일은 자본의 이윤 동기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자본은 그러한 비시장적 개입에 격렬히 저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혹자는 논자의 생각이 지나치게 ‘혁명적’이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보다 더 명백한 사실은 없다. 자본주의는 숭앙할 절대자도 엄수할 보편적 도덕법도 아니다. 그것은 파란만장한 영욕榮辱과 성쇠盛衰의 역사를 가진, 수많은 공과功過의 결합체일 뿐이므로 그것의 장점은 보호하되 결함은 보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것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 않고 먹어 치울 때마다 스스로의 결함을 드러내며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한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가 초래하는 빈부의 양극화와 대량 실업, 인간 소외와 자연 훼손 등을 문제로서 인지하고 해결하는 내적 자정 기제가 없으므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책들은 시장의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것이 라이트가 그의 실험적인 유토피아 설계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하이브리드적 혼합이 필요할 수도 있다”⁵⁰⁾고 강조한 이유이다.

그러한 혼합을 ‘국가 규제 자본주의’라 부르건 ‘사민주의’라 부르건 그렇게 시장에 혼입된 국가적·공공적 문제 해결 조치들은 자본주의의 자멸적인 폭력성을 중화해 그것이 전체로는 인간의 복리에 기여하는 체제라고 믿게 하는 항독소抗毒素가 되어 준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 그것의 고질적인 독소들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무수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보다 체제를 더 존엄히 여기는 물신 숭배자fetishist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러한 이유로 강수돌은 “존엄한 죽음(삶)을 위해 억지 연명치료를 포기하듯, 인간과 지구의 존엄을 지키려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억지 연명책도 포기해야 옳다”⁵¹⁾고 단언한다. 단적으로 말해 인간에게는 양날의 칼인 자본주의의 맹목적 성장 충동을 자양하느라 눈먼

50) 에릭 올린 라이트, 권화현 역 (2012), p. 211.

51) 강수돌 (2020), p. 11.

자본이 만들어 가는, 파멸하는 인간과 자연의 징후들을 못 본 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참고문헌

- 강수돌 (2020), 「한국형 뉴딜과 재난자본주의」, 『녹색평론』, 173: 2-11.
- 김영선 (2013), 『과로 사회』, 서울: 이매진.
- 김태길 외 (1992), 『삶과 일』, 서울: 고려원.
- 최장집 (2013),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서울: 후마니타스.
- 데이비드 미킨 (1976), 이동하 역 (1986), 『인간과 노동: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문학과 문화』, 서울: 한길사.
- 루이스 멍퍼드 (1934), 문종만 역 (2013), 『기술과 문명』, 서울: 책세상.
- 리처드 세넷 (2000), 조용 역 (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서울: 문예출판사.
-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1997), 이희재 역 (1999), 『몰입의 즐거움』, 서울: 해냄.
- 발터 벤야민 (1936), 최성만 역 (2007),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제2판)」, 『발터 벤야민 선집 2: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 사진의 작은 역사 외』, pp. 39-96, 서울: 길.
- 버트런드 러셀 (2004), 송은경 역 (2005), 『게으름에 대한 찬양』, 서울: 사회평론.
- 스베나 플라스 러 (2011), 장혜경 역 (2013), 『우리의 노동은 왜 우울한가: 경쟁 사회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서울: 로도스.
- 스티븐 제이 굴드 (1983), 김동광 역 (1998), 『판다의 엄지』, 서울: 세종서적.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1939), 배영란 역 (2009), 『인간의 대지』, 고양: 현대문화센타.
- 에른스트 슈마허 (1973), 김진옥 역 (1995),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인간 중심의 경제학』, 서울: 범우사.
- 에릭 올린 라이트 (2010), 권화현 역 (2012), 『리얼 유토피아』, 파주: 들녘.
- 임마누엘 칸트 (1785), 이원봉 역 (2002),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서울: 책세상.
- 자크 엘룰 (1964), 박광덕 역 (1996), 『기술의 역사』, 서울: 한울.
- 한병철 (2010), 김태환 역 (2012),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 해리 브레이버맨 (1998), 이한주·강남훈 역 (1998), 『노동과 독점자본: 20세기에서의 노동의 쇠퇴』, 서울: 까치.
- 헥터 맥도널드 (2018), 이지연 역 (2018), 『만들어진 진실: 우리는 어떻게 팩트를 편집하고 소비하는가』, 서울: 흐름출판.

- Anthony, Peter (1977), *The Ideology of Work*, London: Tavistock.
- Bottomore, Tom (1966), "Industry, Work, and Socialism", in Erich Fromm (ed.), *Socialist Humanism: An International Symposium*, pp. 393-402, New York: Anchor Books.
- Friedmann, Georges (1978), *The Anatomy of Work: Labor, Leisure and the Implications of Automation*, Trans. by Wyatt Rawson, Westport: Greenwood Press.
- Hengsbach, Friedhelm (1994), "Arbeit macht stark - Das Beschäftigungsrisiko zersetzt den Willen zur Demokratie", in Hilmar Hoffmann u. Dieter Kramer(eds.), *Arbeit ohne Sinn? Sinn ohne Arbeit: Über die Zukunft der Arbeitsgesellschaft*, pp. 15-25, Weinheim: Beltz Athenäum.
- Hobson, John (1992), *Work and Wealth: A Human Valuation*, London: Routledge.
- Koslowski, Peter (1994), "Überarbeitete und Beschäftigungslose. Sinnverlust der Arbeit durch Ubergeschäftigkeit und Unterbeschäftigung", in Hilmar Hoffmann u. Dieter Kramer(eds.), *Arbeit ohne Sinn? Sinn ohne Arbeit: Über die Zukunft der Arbeitsgesellschaft*, pp. 120-132, Weinheim: Beltz Athenäum.
- Negt, Oskar (1987), *Lebendige Arbeit, Enteignete Zeit: Politische und Kulturelle Dimensionen des Kampfes um die Arbeitszeit*, Frankfurt a. M.: Campus.
- Niethammer, Frank (1994), "Verantwortung des Unternehmers in der Arbeitswelt", in Hilmar Hoffmann u. Dieter Kramer(eds.), *Arbeit ohne Sinn? Sinn ohne Arbeit: Über die Zukunft der Arbeitsgesellschaft*, pp. 109-119, Weinheim: Beltz Athenäum.
- Ropohl, Günter (1992), "Arbeiten, um zu leben: das neue Arbeitsethos", in Karl-Friedrich Wessel(ed.), *Technik und Menschenbild im Spiegel der Zukunft: Wissenschafts- und Technikentwicklung — Fragen unserer Zeit*, pp. 32-41, Bielefeld: Kleine.
- Saiger, Helmut (1998), *Die Zukunft der Arbeit liegt nicht im Beruf: Neue Beschäftigungs- und Lebensmodelle*, München: Kösel.
- Schlothfeldt, Stephan (2001), "Braucht der Mensch Arbeit? Zum normativen Relevanz von Bedürfnissen",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49(5): 709-721.
- Volf, Miroslav (1991), *Work in the Spirit: Toward a Theology of Wor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Liberation From or Within Work?:

A Reflection on the Opportunity or the Crisis Caused by Modern Technologies

So, Byung-Chul

In this essay I focused my attention on the contemporary widespread fatalistic discourses on the ‘end of work’ and their main vision of ‘leisure society without work’, and critically examined its thesis of the ‘liberation from work’, based on another thesis of the ‘liberation within work’ contrasted with the former. My simple and consistent standpoint is that, however less we would work in the future in virtue of highly developed technologies, this would not make our work meaningless. In general, work as a human’s job has been playing the role of the provider of such values as the ‘personal livelihood’, the ‘social recognition’ and the ‘ethical meaningfulness’ in his or her life. But the vision of ‘leisure society without work’ seems to threaten to nullify those three semantic factors of human work. Therefore, we should carefully ask ourselves whether that vision is a promise or a threat to us, or, in other words, whether or not we could truly wish we would live in that society. Considering these points, I argued that we should not use the possibility of the shortening of working hours opened up by modern automation technologies as the opportunity of abolishing all human work, but as the one of humanizing it, and this option is a better way to answer to human dignity. In addition, I emphasized that its best institutional embodiment is the work-sharing program through the shortening of working hours, and its essence does not lie in the ‘reckless escape from work to leisure’, but in the ‘human redesign of both work and leisure and their balanced time distribution’.

【Keywords】 End of Work, Automation Technology, Liberation from Work, Liberation within Work, Humanization of Work

논문 투고일: 2021. 03. 09

심사 완료일: 2021. 04. 13

게재 확정일: 2021. 04. 13